

도호텍스타일이 개발한 벌크성 순면직물 판매급증

도호텍스타일(東邦Textile)은 특수방적사 “마필 에어”로 제직한 직물을 2003년에는 2002년의 2배로 판매가 증가하여, 4만m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마필 에어”는 보통의 코머사에, 특수처리를 하면 길이가 축소된 다음에 완전히 용해되어 없어지는 개질아크릴섬유(改質acryl纖維) “TTZ”를 약 40% 혼방한 특수방적사로서, 이 특수혼방사로 제직한 직물은, 개질아크릴섬유를 특수처리하여 축소시키면 혼방된 면섬유도 아크릴섬유에 끌려 심하게 줄어들어 면섬유가 푸석하게 부풀게 되며, 계속해서 개질아크릴섬유는 특수처리액에 녹아 없어지므로 면섬유는 매우 벌키(bulky)하면서도 가벼운 순면직물이 된다.

도호텍스타일은 “오카야마(岡山) 가이탁 패밀리”와 제휴하여 이 소재로 제조된 파자마는 카달로그 판매하고 있고, 데이진(帝人)파이버와는 이 소재의 기술을 살려 개질아크릴과 폴리에스터로 초경량소재 “파라독스”를 개발하였다.

“마필 에어”의 용도는 나이트(nightie, 여성잠옷)용을 중심으로 이너(inner), 아우터(outer), 어린이옷, 산업자재용으로도 개발하고 있다. ♣